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4
제 1회 현구문학상 선정 (2020. 9. 3. 전남일보, 남도일보)	4
첨부파일(1)	4

제1회 현구문학상 선정 (2020. 9. 3. 전남일보, 남도일보)

작성일 2020.09.03 09:31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164

첨부파일(1) 현구문학상.png 55 hit/375.6 KB [다운로드](#)

全南日報

2020년 09월 03일 (목)

제1회 현구문학상에 '지원 황상' 송하훈 작가

정약용 제자 이야기 향토성 살려
"작품성과 문학적 가치도 높았"



송하훈 작가

1930년대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현구 시인(1903~1960)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 초 초경군에 제정된 현구문학상의 수상자로 소설가인 송하훈(66) 작가가 선정됐다.

송 작기의 작품은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의 지원 황상을 소재로 강진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담아낸 문학이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는 2일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른 송하훈 씨의 장편동화 '지원 황상'을 제1회 현구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제1회 현구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지원 황상'은 다산 정약용의 1호 제자인 지원 황상의 일대기를 어린이의 관점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정약용은 제자 중에서 황상을 가장 아꼈다고 알려져 있다. 정약용은 백의 권요 대학을 세워 서기며 위는 '초사'를 황상에게 가르쳤고 황상은 일문이 남어서도 정약용의 저서를 소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송 작가의 '지원 황상'은 강진의 중심인 달인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을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신달자(대한민국 예술원 정회원)·노창수 시인(한국문학협회 부이사장)은 "마지막까지 두 작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장편동화 '지원 황상'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며 "송하훈 작가의 '지원 황상'은 작품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강진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살려

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현구문학상 제정은 '문학도시 강진'에 광복을 기념해 추진하고 있는 문예는 위대한 첫 발걸음이다. 앞서 2019년 현구문학상 운영에 따른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영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근거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정경 및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현구문학상' 수상 후보는 반드시 강진군에 주소록을 둔 현지 거주 문학인으로, 최고령이 90세 이상 이내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지역문학 발전에 공이 많은 작가들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 가치를 반영하려 했다.

현구문학상의 첫 번째 시상식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정자야생)와 3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현구문학상 심사위원회 심의 자리. 송하훈 작가와 심사위원 신달자 시인이 작품 '지원 황상'을 읽고 있다.

한편 김현구 시인은 1903년 11월 30일 강진에서 태어나 김명, 박유홍, 정지우, 반영호, 신석영 등과 1930년대 활동했던 시문학파 동인이다. 1939년 '시문학'을 창간했다.

남도일보

2020년 09월 03일 (목)

강진군, 제1회 현구문학상에 송하훈 소설가

내달 16일 시문학파기념관서 시상

전남 강진군은 제1회 현구문학상 첫 수상자로 소설가 송하훈(66·사진) 씨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현구문학상은 1930년대 시문학파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현구 시인(1903~1950)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른 송하훈 씨의 장편동화 '지원 황상'을 제1회 현구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다산 정약용의 1호 제자인 지원 황상의 일대기를 어린이의 관점에서 그려낸 '지원 황상'은 강진의 중심인물 다산 선생의 제



자를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은 운영위원들의 추천에 의해 신달자·노창수 시인 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마지막까지 두 작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장편동화 '지원 황상'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면서 "송하훈의 '지원 황상'은 작품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강진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살려내 문학적 가치가 높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16일 오후 2시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정자야생)와 3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진/이봉석 기자

목록

GANGJIN

Web Contents

